은행권 여·수신 금리 속속 인하

기준금리 인하 여파 光銀 예금금리 6.1%

저축銀 대출 금리는 13%대 급등세 유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금리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저축은행의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사상 최저 수준인 3%로 낮추면서 10월부터 예금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광주은행의 경우 1년만기 특판예금 금리는 지난해 6월 연 5.1%이후 계속 상승하다 올해 9월 6.6%를 최고로 꺾이기 시작해 현재는 6.1%로 떨어졌다.

대출금리도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광주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9월 연 6.99~7.89%로 최고를 기록한후 현재는 연 5.21~7.41%로 최저금리가 5%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우리은행 5.0~6.3%, 신한은행 4.9~6.2%, 하나은행 5.13~6.93%, 국민은행 5.0~6.5% 등으로 최근 2~3개월 사이에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1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동향'을 보더라도 금리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대출 평균금리는 연 7.53%로 10월보다 0.26%포인트 떨어져 9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

10월 7.86%까지 치솟았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달 7.56%로 0.30%포인트 하락했고 10월 7.69%를 기록했던 대기업 대출금리도 지난달 7.37%로 0.32%포인트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5.93%로 10월 6.27%보다 0.34%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11월 13.58%로 10월보다 0.44%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2003년 11월 12.6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7.77%로 0.27%포인트 오르면서 2001년 4월 8.12% 이후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의 경우 일반대출 금리는 보해저축은행이 13% 중·후반대를 기록하는 등 평균 12~14%를 보이고 있고 동양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11.8%를 기록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동양과 보해가 7.50%를 최고로 대한 7.10%, 무등, 상업 7.00%, 센트럴 6.80%, 창업 6.32%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쳤지만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은 시차때문에 아직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주택 신규 물량 '반토막'

부동산시장 침체 … 광주·전남 총 공급량 2천여가구 예상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내년 전국에서 신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내년 민간 아파트 총 공급물량이 2천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해에도 주택시장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336개 단지에서 총 27만1천153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올해 주택 공급계획(42만여가구)의 65% 수준으로, 2007년(56만여가구)에 비해선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올해 실제 공급된 아파트는 24만가구로, 당초 분양예정 물량의 57%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새해 주택 공급규모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광주·전남도 새해 주택 분양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광주·전남에서는 4개 단지에서 총 3천267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는 광산구 수완지구와 북구 신용동에서 총 997가구가 공급되며, 전남은 순천에서만 2천270가구가 분양된다. 이같은 광주·전남의 주택 공급규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광주·전남은 최근 2년간 실제 주택 공급이 예정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올해 분양물량은 2천가구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공급규모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7만1천127가구로, 전국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자 주택건설사들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 계획을 잡은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새해 설 선물세트 눈길 29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 기축년 설을 겨냥한 '2009 설 선물세트'가 등장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 가격 낮춘다

경쟁력 확보 차원 수입 쇠고기값의 2.5배로

정부는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쇠고기보다 3배 가량 비싼 한우의 가격을 2.5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한우의 경영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해 냉장육을 기준으로 수입산에 비해 3배 높은 한우고기 가격을 2012년까지 2.5배 정도로 낮춰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등락에 따라 140만~290만 마리로 변동 폭이 컸던 한우 사육두수를 앞으로 200만~280만 마리 범위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도 40~65%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수한 암소와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 개량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간척지 등에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 단지를 조성한다.

한우고기의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우농가의 조직화도 추진한다. 시·군 지역별로 한우농가들의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곳 안팎을 육성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객만족종합평가'

광주농협 2위 차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사진)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08년 고객만족부문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고객 전화조사, 현지조사, 전화상담 친절도 조사 등 올해 1년간 총 8차례의 고객만족부문 평가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광주본부는 1차, 4차, 8차 등에서 1위 성적을 올린 데 힘입어 대전본부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정종순 광주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결의대회 개최, 우수 영업점에 대한 시상 등 다각적인 고객서비스 전략을 마련해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이라며 "고객만족을 목표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젖소 송아지 2만마리 수매

정부 가격 안정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육우 및 젖소 송아지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젖소 송아지 2만마리 안팎을 정부가 수매하는 등의 육우산업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전 40만~50만원 하던 젖소 송아지 값이 최근 3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낙농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젖소 송아지 2만마리 안팎을 마리당 10만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들인 송아지는 시가 수준인 2만원씩에 육우 농가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 1인당 하루 5g씩 공급되는 육우고기 군납 물량을 내년부터는 1일 8g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군 급식물량이 올해 연간 870t에서 내년부터는 1천400t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휴무 돌입

내일부터 5일 동안

국내외 타이어 수요감소로 금호타이어가 최근 감산에 들어간데 이어 3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5일 동안 휴무에 들어간다.

29일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타이어 수요는 감소한 반면 재고량은 크게 늘어 지난해 1월1일 하루 쉬던 것을 5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은 이날 노동조합측과의 만나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감산과 휴무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C&중공업 회생 불투명…지역경제 '암운'

채권단 긴급 자금 지원 무산 협력사 줄도산 우려

29일 목포 삽진공단에 위치한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 150억원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C&중공업의 회생을 바라는 협력업체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은 내년 2월13일까지 채무를 유예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설자금과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일 공산이 커 C&중공업에 자금수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C&중공업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C&중공업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최종 통보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 한때 협력사 재유치 등 공장재개를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목포 삽진공단은 급격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 무산이 협력업체 줄도산이나 워크아웃 무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C&중공업에 대금이 체불된 협력업체는 모두 114곳, 금액으로는 110억원이다. 업체당 1억원꼴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5천만~6천만원 선이며 일부 업체만 체불금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대금체불 장기화로 인한 파급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